

---

어떻게 하면 고착개념에서 벗어날 수 있지요?

‘인간은 평생 살면서 두뇌의 10%밖에 못 쓴다’는 말, 들어봤지?

“행복한 가족은 모두 비슷한 이유로 행복하지만,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.” 톨스토이의 소설 《안나 카레니나》의 첫 문장이야. 참 멋지지?

‘나이는 숫자일 뿐’이라는 말도 일리 있어 보이잖아?

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보게. 평생 두뇌의 10%만 쓰고 죽는다고? 사람이 뇌가 가진 능력을 10%밖에 사용하지 못하다는 것은 그럴듯한 속설일 뿐,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 없어. 아인슈타인의 두뇌를 해부해봤더니 그렇다더라고 근거 없는 소문이 퍼지면서 많은 사람이 의심 없이 믿어버린 거야.

행복한 가족이 왜 비슷한 이유로 행복해? 각자 다른 이유로 행복해. 내가 아는 가정에는 자녀 한 명이 장애가 있어. 가족이 큰 병을 만나면 분열하거나 툭툭 뭉치거나 둘 중 하나가 되더라. 그 집은 후자여서 그 아이 때문에 너무 행복해. 저녁이면 가족이 모여 그 아이를 돌보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게 그 집의 큰 행복 요소야. 행복한 이유도 집집마다 다 달라.

나이는 숫자일 뿐이다? 아니더라고. 말하면 누구나 아는 대기업 회장이 계신데 학창시절에 유도를 해서 늘 기운이 펄펄하셨거든. 그런데 “일흔이 넘으니 힘들어. 세상 흐름을 쫓아가기도 버겁고...” 하시더라.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게 결코 아냐.

여기저기서 듣게 되는 지혜의 말들이 다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, 별생각 없이 ‘그렇군’ 하고 받아들여서 은연중에 나의 고착개념이 된 것이 많아.

그러니 업의 본질을 생각할 때에도 ‘아, 이게 혹시 나의 고착개념은 아닐까?’ 하고 점검해보는 게 좋아.